

Arts Friend

2025
Vol.286

7·8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Contents



Events

울산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2025 샌드아트로 즐기는 『문학이 있는 클래식 제2막 - 잠자는 숲속의 미녀』	04
시립교향악단 제244회 정기연주회 『희망과 감성 - American Dreams & French Impressions』	05
시립교향악단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 - Summer Night Gala Concert』	45



Exhibitions

울산 갤러리 소개 곽암아트카페갤러리 / 두동 뮤즈세움 갤러리 / 서생 아트나살 웅촌 선갤러리문화관 / 성안동 시안갤러리 / 삼산동 비모어 장생포 아트스테이 / 슬도아트·문화공장방어진 / 신정동 잇츠룸	06
--	----



Arts & Story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울산의 보물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의 유산으로	12
조희창의 테마클래식 카논과 푸가 - 세상의 모든 변화를 위하여	21
서예이야기 甲骨文(갑골문자)와 금문(金文)	24
오나경의 이지아트 컬렉션44 컨템퍼러리아티스트의 작품세계 22	28

Information

공연가이드	38
전시가이드	39
공연일정	40
전시일정	42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44
유료회원 가입안내	46
협약점 이용방법	47

LA BELLE AU BOIS DORMANT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샤를 페로 Charles Perrault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휘 박윤환 | 진행 정아름 | 샌드아트 임주은

차이콥스키 | 발레음악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작품 66 중

울산시립교향악단
샌드아트로
즐기는
문학이
클래식 제2막

2025. 7. 11. (금) 오후 7: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전석 1만원 | 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 중, 고) 및 청소년층 소지자 50% 할인

조기예매 할인 2. 12. ~ 6. 11.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052)275-9623

울산시립예술단 | ulsan_arts_companies
울산시립교향악단 | upo_blue

울산시립예술단

주최_ 울산광역시 |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CITY |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44회 정기연주회

희망과 감정

지휘 사샤 괴첼
Conductor Sascha Goetzel

AMERICAN DREAMS & FRENCH IMPRESSIONS

번스타인 | 오페레타 「칸디드」 서곡
Leonard Bernstein | 「Candide」 Overture

거슈윈 | 랩소디 인 블루
Gershwin | Rhapsody in Blue

라벨 | 스페인 광시곡
Ravel | Rapsodie Espagnole

드뷔시 | 바다
Debussy | La mer -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pour orchestre

2025. 7. 25. (금) 오후 7: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_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 중, 고) 및 청소년층 소지자 50% 할인

울산시립예술단 | ulsan_arts_companies
울산시립교향악단 | upo_blue 사샤괴첼 | saschagoetzel

‘울산시립예술단’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052)275-9623

주최_ 울산광역시 |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CITY |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연 상세보기

피아노 서형민
Piano Hans. Suh

Exhibitions

갤러리 소개

바야흐로 한 여름이다. 한 낮 더위가 30도를 웃도는 여름에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계도 잠시 휴지기(休止期)를 갖는다. 하지만 한 여름에도 갤러리들은 문을 열고 각종 전시와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최근의 갤러리는 단순한 미술작품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페와 결합된 카페 갤러리, 또 공연, 행사, 파티 장소, 여행 숙박 등으로 진화하며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 여름과 휴가철 울산에 가볼만 한 갤러리들을 소개한다.

차형석 경상일보 사회문화부 부장대우



◇곽암아트카페갤러리

울산 북구 구유동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아름다운 풍광을 품은 통유리창의 멋진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멀리서 보면 언뜻 카페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 세 개가 엮갈려 이어진 복합전시문화공간 ‘곽암아트카페갤러리’다. 갤러리의 이름은 ‘미역바위’라는 뜻의 판지마을 앞 바닷속에 있는 바위 ‘곽암’에서 났다. 2021년 12월에 문을 연 곽암아트카페갤러리는 무거운 전시공간을 탈피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시공간을 추구한다. 울산 청년 작가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역 작가와의 협업 등 대관 위주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를 관람하다가도 1층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쉴 수 있고, 카페 음료를 손에 들고도 전시를 볼 수 있다. 탁 트인 통창의 1층 카페도 곳곳이 숨은 전시공간이다. 신진 작가들의 설치미술 작품을 오브제로 활용해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울산 출신의 섬유작가 황교선, 라텍스를 이

용한 안민환 작가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곽암아트카페갤러리에는 실내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와 루프탑의 멋진 공연 공간도 마련돼있다. 또 야외정원에는 오리도 키우고 있어 자연 속에서 커피와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으며 가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신천동 감성깡도2020

북구 매곡천을 따라 아파트와 주택이 빼곡히 자리한 골목을 한참 들어가면 빨간색 벽돌 외관이 인상적인 ‘감성깡도2020’이 자리하고 있다. 북구의 뿌리 문화인 달천철장의 철 문화 모티프에 개관 연도를 붙여 ‘감성깡도2020’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감성깡도는 과거 철 생산 중심지에서 문화를 통해 다시 북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뜻을 담았다. 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북구에서 문화 향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감성깡도는 전시와 공연, 강연, 체험 등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한 건물 A동에는 사무 공간, 강연장,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이 등지를 틀었고, 맞은편 새로 지은 B동에는 전시 공간과 루프톱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두 건물 사이 가운데 공간에서도 클래식 콘서트 등 크고 작은 공연들이 열린다. 벽면에 길게 난 창문이 인상적인 전시 공간은 입주작가들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꾸려가고 있다. 강의장에서는 지

역 성인들 대상 독서클럽, 레지던시 작가들과 함께하는 미술, 디카시, 창작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감성깡도는 올해 생태예술 행사 ‘감성충전Ⅲ’을 진행하고 있다. ‘감성충전Ⅲ’은 울산시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에 선정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로, 올해는 산업도시를 넘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생태도시 울산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동 뮤즈세움 갤러리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 울산의 주요 유적들과 차로 10분 거리에 노출 콘크리트 외벽이 인상적인 뮤즈세움 갤러리(두동면 천전리 647)가 자리하고 있다. 뮤즈세움 갤러리는 2020년 2월 개관해 올해 만 5년이 된 갤러리다. 2022년 1월초까지 KTX울산역 인근에서 운영되다 그 해 5월 울주군 두동면에 새롭게 등지를 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울산 시외에서 활발하게 작업 활동을 하는 지역의 숨은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탄생한 공간으로 암각화군·영남알프스와 인접해 울산의 문화유산과 함께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작품을 관람하기 안성맞춤이다. 갤러리 공간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설계했다. 발아래로 난 창문이 인상적인 기다란 사다리꼴 모양의 1층, 통창과 높은 층고가 인상적인 2~3층으로 이뤄져 있다. 작품에 내리쬐는 강한 빛이 아닌 은은한 자연광이 어우러져 작품을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1층 야외에는 설치 작품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고, 2층 루프탑에서는 주변 숲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 갤러리 옆에는 숙박할 수 있는 뮤즈세움 스테이도 함께 운영중이다. 최윤간, 최영욱, 남춘모, 김현식 등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블루칩 작가들의 기획전 등이 이곳에서 열린 바 있다.

Exhibitions

갤러리 소개



◇웅촌 선갤러리문화관

울주군 웅촌면 김단리에 자리한 선갤러리문화관은 울산 도심에서 차로 20~30분만 가면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부산과도 가까워 외지인들도 나들이를 겸해 전시를 즐기러 많이 찾는다. 선갤러리문화관은 천연염색을 하는 이선에 작가가 지난 2011년 문을 열었다.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한 이 관장이 그림 등에도 관심이 많아 직접 갤러리를 만들고 운영하게 됐다. 개관 이후 분야의 구분 없이 많은 전시가 열렸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가량 전시가 열려 한해 10여 차례의 전시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대관 전시를 비롯해 계

절마다 기획전과 초대전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선갤러리문화관은 산에 둘러싸인 산골 마을에 있어 작품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성산, 정족산, 대운산 등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산에 둘러싸여 맑은 공기와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다. 갤러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갤러리가 ‘T’자 형태를 띠고 있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에 좋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도 편한 동선으로 작품을 둘러볼 수 있다. 개인전을 하기에 알맞고, 소품 위주의 아기자기한 작품으로는 그룹전도 열 수 있다.

선갤러리는 울산 시내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한 전시마다 많은 관람객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기간을 조금 길게 가지는 편이다.



◇서생 아트나살

아트나살은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오션뷰’ 갤러리다. 탁 트인 동해가 눈에 들어오는 아트나살은 한적한 분위기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간 곳곳에 걸린 그림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아트나살은 대중들이 미술 등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2019년 문을 열었다. 아트나살은 전문 갤러리와 갤러리 겸 카페로 운영되는 공간을 함께 운영 중이다. 갤러리 건물에는 다각형 벽면이 인상적인 두 개의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고, 카페도 아름다운 동해의 풍광과 함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아트나살은 지역문화 저변을 넓히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국단위 조각 공모전을 계획 중이다. 활발하게 작업 활동을 하는 지역작가들을 발굴하고, 전국의 작가들을 울산에 소개하기 위해서다. 자체 공모전을 통해 갤러리로서 전국에 소개할 수 있는 울산 작가들을 많이 육성하고 지역의 향유 계층인 컬렉터도 발굴해 이들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구매하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구상에서다. 이런 취지로 개관 이후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제주 등지의 작가들이 참여한 공예전, 울산지역 작품을 소개하는 작은 아트페어 프로젝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아트나살은 작가와 컬렉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작품 활동하는 작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안동 시안갤러리

중구 성안동 시안갤러리는 2021년 초 문을 열었다. 현대 미술 작업을 오랫동안 해 온 부부 작가가 직접 작품활동을 하면서 기획해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전시를 해보자는 생각에 갤러리를 열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미술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예술을 경험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갤러리는 작가 부부의 작업 공간을 겸한 전시 공간이다. 작가가 작품으로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잘 알고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상주를 택했다. 이 때문에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은 도슨트의 역할을 맡은 부

부의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시안갤러리는 울산 작가들 중심의 전시를 열고,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는 갤러리를 지향한다.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울산 작가들은 누구나 소개하고 싶어 하고 또 관심을 두지만, 울산미술협회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과 작가들이 많다는 생각에서다. 또 전국의 컬렉터 가운데서도 울산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의 갤러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유명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갤러리와 단절된 모습이 아쉬워서다. 무엇보다 시안갤러리는 단순한 작품을 진열하는 ‘화이트 큐브’를 넘어, 작가와 관객, 그리고 지역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꿈꾼다.



◇삼산동 비모어

울산의 중심 상권인 남구 삼산동에 자리잡은 ‘비모어’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자 독립문화예술공간이다. 비모어는 화학약품 공장으로서 사용되던 곳을 재활용해 카페를 겸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기공사 등 일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보미 대표의 손으로 직접 꾸민 공간이다. 예전 공장으로 사용될 때부터 쓰던 육중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서면 방수 페인트가 칠해진 독특한 초록색 바닥이 인상적이다.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작가들이 공간에 대한 오염 걱정없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꾸몄다. 비모어는 예술가들이 소통·교류하는 공간이자 취미로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지역 청년 작가들이 작업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작가가 자신의 머릿 속에 있는 작품을 현실에서 표현하고, 전시를 기획해 설치까지 마무리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비모어는

Exhibitions

갤러리 소개

미술대학 졸업 이후 작업의 끈을 잠시 놓았던 작가들이 전업 작가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작업·전시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무용 공연은 물론 비보이 그룹의 영상 촬영 장소가 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2024 울산국제아트페어’ 프리뷰 파티가 이 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장생포 아트스튜디오

장생포의 해안가 주택 사이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해안가의 또 다른 문화공간인 ‘장생포 아트스튜디오’가 있다. 포경산업이 활발하던 시절 선원들과 울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묵었던 신진여인숙이 지난 2018년 오래된 유헥 공간에서 리모델링을 거쳐 ‘장생포 아트스튜디오’로 재탄생했다.

아트스튜디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학 창작활동을 하는 레지던시 작가 6명의 창작공간과 북카페, 성인을 위한 목공 수업교실, 어린이 대상 예술 수업 공간이 있다. 탁 트인 앞마당에는 장생포를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북콘서트·문화강좌 등 문화행사도 열린다. 건물 한쪽에는 신진여인숙으로 운영될 때 모습과 사용됐던 물품과 선원들의 물건 등이 전시돼있다. 북카페에서는 아트스튜디오 공간이 생긴 직후 레지던시와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전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펼친 테스트베드 형태의 창작활동 ‘창(蒼)생(生)전(前)’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준다.

장생포 아트스튜디오는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여인숙으로 운영될 때 사용했던 대문 등 기존의 외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 그 자체로 장생포의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는 아카이빙 공간인 셈이다. 북카페와 연결된 다락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슬도아트·문화공장방어진

울산 동구의 관광명소인 슬도 입구 앞에 들어선 ‘슬도아트’는 기존 소리체험관을 리모델링해 지역 작가와 주민이 만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곳이다.

동구 성끝길 103에 678.51㎡ 규모로 1층 어린이체험관, 2층 전시관 2곳, 그리고 야외공연장과 옥상 버스킹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옥상 버스킹 공연장에서는 아름다운 슬도와 방어진 풍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소리와 미디어전시관도 조성돼 3D 디지털아트 및 디지털영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슬도아트는 지난해 1월 중순 개관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슬도아트에서는 고우련, 송은지, 이우수 3명의 작가 전시회가 각각 7월말과 9월초까지 진행되고 있다.

방어진항 방어진활센터는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다. 이 곳에 예술을 가미한 문화공간인 ‘문화공장 방어진’이 들어서 있다.

동구 중진2길 5에 위치한 문화공장 방어진(183.2㎡)은 방어진활어센터 상인들의 공간 활성화 의지와 ‘2023 문화도시 울산의 문화실험실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문화공간이다.

지역 작가들의 창작 작업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전시실과 방어진의 콘텐츠를 창작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정동 잇츠룸

울산 남구 신정시장 사거리에서 강남교육지원청 쪽으로 가다 보면 오래된 건물 1층에 산업문화갤러리 ‘잇츠룸’이 있다. 지역의 IT기업 ‘아이티공간’ 사옥 로비 공간을 리모델링해 갤러리 겸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잇츠룸은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21년 9월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다 동네 주민들이 오며가며 들리면서 이제는 사랑방 같은 갤러리가 되었다.

잇츠룸의 공간은 자유분방하다. 165㎡가량의 전시 공간은 단정한 분위기의 다른 갤러리 카페들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구와 책, 조명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면을 흰색 등 무채색으로 채운 일반적인 갤러리 공간과는 다르게 초록색을 입혀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눈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장이 많은 울산의 산업문화와 울산이라는 도시의 성격에 맞게 공간을 꾸민 점도 눈에 띈다. 갤러리 중앙을 장식하는 상들리에 형태의 조명은 케이블과 백열전구를 활용해 직접 만들었고, 갤러리 곳곳에 배치된 가구들은 울산의 퇴직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것을 직접 가져다 놓은 것도 많다.

전시도 일반적인 전시가 아닌 특이한 삶과 이력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 또 다양한 공연 및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

울산의 보물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의 유산으로

수천 년 전 선사인들은
강가의 바위에 삶과 신념, 자연에 대한 경외를 새기며
미래의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이 남긴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
동물과 인간의 모습, 기하학적 문양 등
그 하나하나의 조형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당시 인류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소중한 기록이다.

글 고은정 울산매일UTV 뉴스룸 문화 담당
사진 제공 울산시·동국대학교 박물관

◆7월 중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울산의 자랑, '반구천의 암각화'가 7월 중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그림과 문자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반구천 일원 3km 구간의 단일 유산이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난 5월 26일(한국시간) 세계유산 목록 '등재 권고'를 받았다.

'등재 권고'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하 '이코모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사항이다. 이코모스는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에 대해 등재 신청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4가지 요건인 ①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②완전성 ③진정성 ④보존 관리 체계의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등재권고'를 선택해 세계유산센터에 전달했다.

7월 중순 파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 대한민국에서 17번째 세계유산이자, 국내 세계유산 중 가장 오래된 유산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지닌 유산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 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희소한 주제인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그림은 선사인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 문화의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총 10가지(i ~ x)로 구성되며, 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코모스는 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기준 i인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iii인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특히 등재 기준 i의 충족은 '반구천의 암각화'의 한반도 선사 문화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그 시작이 울산이라는 점에서 울산이 유서 깊은 국제 문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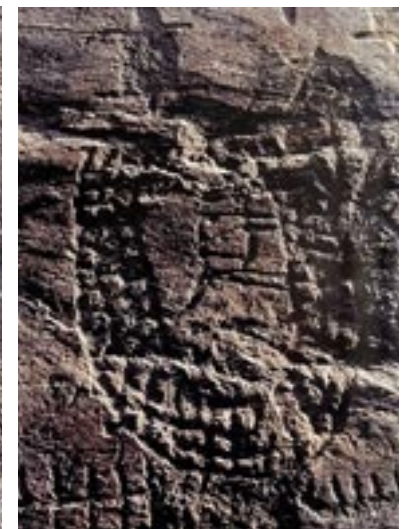
=서진길 사진작가 제공



사람 얼굴



고래와 작살



짐승이 잡힌 그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탁본
= 동국대학교 박물관 제공

◆국내 세계유산 중 가장 오래된 유산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등재 심의는 7월11일~13일(현지 시각) 사이에 이뤄진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상 세계유산위원회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는 자발적 등재 포기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자발적 등재 포기 사례는 지난 2021년 헝가리가 ‘로마제국의 국경-다뉴브라임스(Frontiers of the Roman Empire - The Danube Limes)’를 국내문제로 포기한 것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공동신청한 ‘로마제국의 국경-다뉴브라임스Frontiers of the Roman Empire - The Danube Limes’는 헝가리 정부에서 계획 중인 부다페스트 인근 개발계획에 따라 유산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자문기구의 ‘등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는데, 헝가리가 등재를 포기하면서 원래 175개였던 연속유산의 구성요소가 최종적으로, 77개로 축소되면서 위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등재에 성공했다.

◆ 7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준비 만전

결론적으로 5월 진행된 이코모스의 세계유산센터 최종보고서 제출 후 향후 절차는 사실상 7월 심의만 남은 상황이다. 울산시와 국가유산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전 시와 국가유산청은 이코모스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실무적인 절차가 이뤄진다.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나 오타자 등 전반적 오류 등을 검토하는 것인데 다만 이 과정은 크게 오류가 없을 시에는 진행되지 않는다.시와 문화유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 건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다.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심의를 최대 35건까지 진행하는데 심의 건수가 많은 만큼 신속하게 진행된다. 심의 절차는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코모스가 보고서를 요약 발표한다.

이어 21개 위원국이 의견을 개진한다. 질의가 있으면 당사국이 답변하고, 이후 위원회가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반구천의 암각화' 경우 이코모스에서 이미 '등재 권고'된 사항이라 특별한 추가 질의는 없을 것으로 울산시와 국가유산청은 예상하고 있다.다만 위원회에 대비해 부위원장국이기도 한 우리나라는 필요시 국가유산청이 회원국 상대 설득 업무를, 울산시는 보존 관리 계획 설명, 유산 가치 홍보, 지지 호소 등 사전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시는 이렇듯 이코모스의 권고에 따라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관계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로 평가 절차는 완료됐다”며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의 우수한 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무사히 세계유산에 등재돼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 외교부 등 모든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1995.6.23 국보 지정

- 울산 울주군 연양읍 대곡리 산 234-1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대상 구역인 반구천 일원은 약 3km에 걸쳐 흐르는 물길을 따라 하나의 거대한 자연 캔버스를 이루고 있다.

완만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굽이쳐 흐르는 감입곡류 하천을 따라 기이하게 생긴 암벽 면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이 구간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그림과 문자가 암벽 면에 새겨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의 명문과 암각화가 자리하고 있다.

두 바위 면은 크고 판판하며, 자연적으로 절벽에 그늘이 생기는 구조와 소리 울림 현상이 있는 환경이 공통으로 확인된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의 지류 하천인 반구천의 절벽에 있으며, 반구대에서 하류 약 0.7km 지점에 있다. 너비 약 8m, 높이 약 4.5m 규모의 중심 바위 면과 10여 곳의 주변 바위 면에 그림이 새겨져 있다. 그림이 새겨진 판판한 바위 면의 위쪽은 2~3m 정도 처마처럼 튀어나와 있어 비바람으로부터 암각화를 보호하고 있는 구조이다.

신석기 시대의 삶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그림만 해도 312점에 이른다.

고래, 거북,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과 인물, 활·그물·배와 같은 도구, 그리고 고래잡이 장면이 이르기까지 약 20종의 동물이 새겨져 있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표현된 그림들이 돋보인다.

또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래를 잡거나 활과 화살을 이

용해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 등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고래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 포획 과정까지 담은 장면은 당시 동아시아 해양 어로 문화를 반영한 귀중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위에 새겨진 다양한 동물과 도구 그림은 울산 및 동남 해안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 뼈 및 도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 약 9.8m, 높이 약 2.7m 규모의 중심 바위 면과 주변 바위면 4곳에 다양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 중심 바위 면의 위쪽은 약 25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비바람으로부터 암각화를 보호하는 구조이다.

이 유산은 신석기부터 청동기, 신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흔적을 품고 있다.

현재까지 총 625점의 그림과 문자가 확인되며, 한 바위 면에 시대별로 일정한 구획을 나누어 배치되어 있다. 바위 면의 왼쪽 위에는 사슴, 물고기와 같은 신석기 시대의 그림이 새겨져 있으며, 바위 면의 중앙 상단에는 동심원, 마름모,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1973.5.4 국보 지정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10-2

물결무늬와 같은 청동기 시대의 추상 그림이 새겨져 있다. 바위 면의 하단에는 신라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는 행렬 그림과 노를 단 배, 말과 용 등의 세선 그림과 문자가 새겨져 있다. 특히 신라 법흥왕 대 명문이 새겨져 있어 고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시대별로 그림 표현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며, 각 시대와 주제를 고려해 배열된 점이 특징이다.

하나의 암벽에 수천 년에 걸친 삶의 흔적이 겹겹이 새겨져 있어, 시간의 흐름과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의 지 하천인 반구천에 위치하며, 반구대에서 상류 약 0.7km 지점에 있다. 너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산 가치

△ 등재 기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에 해당해야 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이 지역 사람들의 예술세계와 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희소한 주제인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담은 그림은 선사인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최고의 작품이다.

△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반구천의 암각화는 약 6천 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이다.

반구천의 특별한 공간을 따라 바위 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누적된 제작 전통의 독보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다양한 사회단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례적인 유산이다.

△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속성의 핵심은 ‘그림’과 ‘문자’이다.

그림과 문자가 새겨진 바위 면을 중심으로 하천과 산으로 이루어진 경관이 포함된 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의 규모는 적정하다.

유산 구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향후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 진정성

반구천의 암각화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과 기법, 위치와 주변 환경, 정신과 감정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처음 조성된 원래 자리에 위치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루는 전반적인 속성은 변함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자문기구 ‘이코모스’의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현장실사 모습.

△ 보호관리요건

보호관리요건 문화유산법을 중심으로 수도법, 산림보호법 등이 함께 적용되어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암각화와 크리스마스

동국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은 1970년 12월 24일 울주 지역 불교 유적을 조사하던 중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 반고사터를 찾기 위해 반구대를 방문했다. 이때 마을 주민(최경환)의 제보로 반구천 상류에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발견하여 우리나라의 암각화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듬해인 1971년 12월 25일 문명대, 김정배, 이용조 교수 등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다시 조사하다가 마을 주민(최경환, 손진봉)의 도움을 받아 반구천 하류에 위치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하였다.

두 암각화는 각각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에 발견되어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1973년과 1995년 각각 국보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은 크게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세계유산은 유형의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유산은 그 성격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유산이라고 인정할 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이때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완전성은 유산이 그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이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진정성은 그 가치가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존됐는지를 의미한다. 흔히 ‘세계문화유산’ 또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만, 정확한 공식 명칭은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 종류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는 크게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 있다. 이중 세계유산은 유산의 성격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세계유산 정의

울산의 자랑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를 목표로 하는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유산이다.

흔히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세계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세계유산 등재 목록: 총 16건(2025년 1월 기준)

- 문화유산

①종묘(1995) ②해인사장경판전(1995) ③석굴암과 불국사(1995) ④수원화성(1997) ⑤창덕궁(1997) ⑥경주역사유적지구(2000) ⑦고창, 하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2) ⑧조선왕릉(2009) ⑨한국의 역사 마을:하회와양동(2010) ⑩남한산성(2014) ⑪백제역사유적지구(2015) ⑫산사, 한국의산지승원(2018) ⑬한국의 서원(2019) ⑭가야 고분군(2023)

- 자연유산

⑮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2007) ⑯한국의 갯벌(2021)



김섭작 시간여행 (Time Travel 2017)

△김 섭-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 섭 울산대 미술학부 명예교수의 작품은 꿈틀거리며 발아하는 생명체의 형상을 기호화된 상징물로 표현한 작품이다.

소박한 일상의 장면들을 동화적 정서로 친근하게 살려내, 문화적

종교적 관심과 감성의 깊이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림 한 장면 한 장면, 마치 책갈피를 넘기듯 어눌하지만, 정감 어린 말씨로 전한다. 그림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야기 속 화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있는 기쁨들을 찾아간다.

고래, 멧돼지, 사슴, 호랑이 등 반구대 암각화 속 동물들의 형상들이 어우러지며 작고 소박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선 드로잉들을 겹겹이 올린 그림들은 애정과 편견, 유희, 교만 등을 은유하며 세태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암각화를 중심 주제로 삼진 않지만, 기존 작품 속 이야기들과 어우러져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며 “처음엔 전혀 맞지 않는 줄 알았던 암각화가 오히려 작업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생명력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독일 쾰른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국내외에서 62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룹전에도 720여회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회로부터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박현율작 선사시리즈

△박현율-울산의 선사유산, 한국화로 되살리다



울산을 닮은 몽환적인 화폭 위에 고래, 호랑이, 멧돼지, 사슴이 자유롭게 노닌다. 분홍빛 벚꽃과 푸르른 소나무, 활짝 핀 매화도 함께 어우러진 화면은 시대도 기법도 달라 보이지만 묘한 조화를 이룬다. 전통

한국화에서 실험적 기법까지 넘나들며 울산을 담아냈다. 한국화가 박현율 작가는 30년간 창작 작업을 해온 울산의 중견작가다.

30년 가까이 울산에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 작가는 동국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뒤, 대왕암과 신불산, 간절곶 등 울산의 자연과 명소를 실경산수화로 담아내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그는 반구대 암각화를 오랜 시간 천착해 온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반구대 암각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을 본격화한 박 작가는 선사시대인들의 세계관을 상상하며, 바위에 새겨진 동물들의 생동감과 조형미를 섬세하게 재현했다. 특히 바위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우유, 커피, 아교 등을 분무기로 뿌려 먹과 섞는 등 독특한 기법을 개발했으며,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작품 ‘선사이야기’로 한국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박현율 작가는 경남 통영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울산광역시미술대전 우수상 및 특·입선 등의 경력이 있으며 2021년 대한민국미술인상, 2019년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울산 전업작가회전, 울산한국화회전을 비롯해 각종 초대전 및 그룹전에 다수 참가했다. 현재는 울산미술협회 감사, 울산 전업작가회, 울산한국화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희성작 원시 회귀

△양희성 작가- 원시 회귀



양희성 작가는 1980년대 중반 울산에서 열린 청년 작가 11인전을 계기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작업은 갈색톤 위주에서 푸른색과 흰색으로 서서히 변화했다. 그럼에도 반구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고래, 사람의 얼굴, 짐승의 도상을 선묘한 3~4호의 작은 캔버스를 여러 개 이어 붙여 거대한 암각화의 현존을 차용하는 방식은 변함 없는 그의 작품 세계의 특징이다.

암각화의 도상들을 하나하나 개별화해서 기호 자체의 특성을 강조하여 각각의 작은 캔버스에 그려내어 개체성과 종합이라는 이중성을 담아내었다.

이는 곧 고대인들의 공간 감각을 체험하는 것이며, 기호로 범람하는 오늘날, 작가의 옛 신화에 대한 갈망이자 회복이다. 대형 화면 위에 빼곡히 들어선 원시 도상의 소우주는 현대의 이모티콘 문화와 조우하며 자연 회귀의 정서를 표출한다. 양희성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했다. 2014 양희성 4회 개인전 (울산, 신화예술인촌 갤러리), 2007 양희성 3회 개인전 (울산, 문화예술회관), 2004 양희성 2회 개인전 (울산, 갤러리 A&D), 1994 양희성 1회 개인전 (서울, 조형갤러리), 1992 경남미술대전 대상 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회, 입선 7회, 목우회, 부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특선, 입선 다수 입상 외 단체전 200여 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울산미술협회 회원이다.



우형순작 life and history-꿈꾸는 나무

△우형순 작가-Life and history:스치는 모든 시간들



“행복한 삶에 다다르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은 시대를 초월해 지속될 것입니다”

우형순 작가는 선사시대의 삶과 자연에 대해 기록한 인류문화유산인 울주 대곡

리 반구대 암각화를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 기록과 예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선사시대 암각화 속 순수 자연을 통해 삶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나아가 생명에 대해 자신만의 새로운 색채로 그려낸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인류의 시간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도 여전히 완전함, 안전함, 지속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변화하고 있다. 우 작가의 작품은 이러한 인류의 삶에 대한 찬미를 담고 있다.

우 작가는 “태초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메시지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우형순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 졸업 및 계명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전 16회, 미술제 및 아트페어 부스전 6회, 2인전 1회, 단체전 250여 회의 전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1회 두산 아티스트 페스티벌 대상작가 수상, 청년작가상, 창작상을 수상했으며, 반구대 암각화 발견 30주년 기념 실측도 조사 및 연구 (한국선사미술연구소), 울산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 울산문화재단 심의위원,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이다.

카논과 푸가

“바흐의 음악...
그것은 천지창조 이전에 하느님이 자신과 나는 대화다.”
- 괴테

조희창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음악감독

-동일성과 다양성의 문제

세상은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일까, 아니면 변화하는 듯 보이지만 항상 일정한 패턴 속을 움직여가는 것일까?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세상의 원리가 변화에 있다는 것을 이미 기원전 500년경에 파악해놓았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서의 한 선지자는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것이 철학에서 자주 말하는 다양성과 동일성의 문제다. 다양성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모든 순간이 변화로 이루어지지만, 동일성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섭리의 연속이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며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섭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속의 모든 시간은 변화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동일성의 문제는 비단 철학자의 고민거리만이 아니다.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인문예술은 이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다. 특히나 음악은 이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음악이란 변화의 기본 원리인 시간 속에 자리한 예술이다. 그래서 음악을 작곡한다는 행위는 음을 시간상으로 어떻게 결합해내는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음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여 변화를 줄 것이며, 또한 그 속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게 할까? 이는 음악의 영원한 숙제였다.

바로크 시대가 낳은 카논과 푸가

바로크 시대에는 선율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더 멋진 음악이 될 수 있을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했다.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대위법(對位法. Counterpoint)이었다. 이는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선율을 결합하는 작곡 기법을 총망라한 것이다. 음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화성법이라고 한다면, 음을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대

위법이라 할 수 있다. 대위법 중에 유명한 용어로 ‘카논’(Canon)이란 게 있다. 카논은 ‘규칙’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kanon에서 유래된 말인데, 음악에서는 두 개 이상의 성부를 서로 어울리게 모방하면서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음악 시간에 부르던 돌림노래를 떠올리면 된다. 돌림노래를 부르는데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 부를 것이냐, 즉 성부의 수에 따라 2성 카논, 3성 카논 등으로 불린다. 앞선 노래와 따라가는 노래 사이의 음정에 따라 5도 카논, 8도 카논 등으로 나누며, 모방하는 방식에 따라 병행 카논, 거울 카논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했다. 그 유명한 파헬렐의 카논은 바로크 카논의 기본을 잘 보여주는 곡이다. 카논이 좀 더 발전하여 ‘푸가’(fugue)라는 기법을 낳았다. 푸가는 이탈리아어로 도망간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다. 앞의 선율이 도망가듯 진행하면 뒤의 선율이 이를 모방하고 변형시키며 따라가는 형식이라는 것을 용어에서 알 수 있다.

푸가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곡이 시작하면서 기본 조성으로 된 주제를 소개하면, 음정을 달리하여 주제에 대한 응답적 선율을 내놓는다. 이렇게 제시된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는 주제(대주제)로 변화시키면서 발전시키다가, 다시 성부들이 모이면서 끝맺는다.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상 음악으로 전개될 때는 작곡가의 구상에 따라 끝도 모를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음악의 아버지”로 부르는 J.S.바흐는 푸가의 거장이었다. 그는 평생토록 푸가의 기법들을 연구했다. <작은 푸가> <토카타와 푸가> 등 수많은 실험작이 있었고, 죽기 전까지 고심하면서 정리하던 곡도 <푸가의 기법>이었다. 이후 푸가는 모든 작곡가가 거쳐 가야 할 필수 관문이 되었다. 현대에도 여전히 작곡가들은 푸가의 기법을 공부하고 있다.



파헬벨
: 카논 D장조

요한 파헬벨(1653~1706)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였고, 교사이기도 했다. 이 곡은 파헬벨이 에르푸르트에서 활동하던 시대인 1694년에 자신의 제자이자 바흐의 친척이기도 한 요한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의 결혼식으로 위해 작곡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결혼식장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원 제목은 <세 대의 바이올린과 지속저음을 위한 카논과 지그 라장조>(Kanon und Gigue in D-Dur für drei Violinen und Basso Continuo)였다.

이 곡은 파헬벨이 세상을 떠난 후 완전히 잊히고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무려 1919년이었고, 그렇게 발견된 곡이 다시 초연된 것은 1940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다가 1970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클래식 음악 전문 라디오 채널에서 이 곡을 틀어주었고, 그제야 청취자들이 파헬벨의 카논이라는 곡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거의 300년 만에 부활한 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카논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원래의 편성은 세 대의 바이올린에 첼로, 하프시코드 같은 통주저음이 따라 붙는 형태지만, 지금은 팝, 재즈, 심지어는 메탈 밴드도 편곡해서 연주하는 곡이 되었다. 조지 윈스턴의 앨범 <디셈버>에 수록된 카논은 한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많이 편곡당한 곡”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지만, 그러기 위해서 300년을 묻혀 지낸 곡이다.



바흐
: 푸가의 기법 BWV 1080

최민식이 탈북한 수학자로 나오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바흐 좋아하세요?” “음악의 시작이자 끝이지!” “시작은 그렇다 쳐도 끝이기까지야.” “인류가 멸망해도 바흐와 악보만 있으면 모든 음악을 복원해낼 수 있지!”

바흐는 위대한 종합 능력을 갖춘 작곡가였다. 그는 당시까지 전해오던 모든 음악적 이론과 기법을 섭렵하여 총정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통적 대위법에다 이탈리아 음악이 가진 주제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결합했으며, 이전에 볼 수 없던 강렬한 화성으로 음악을 펼쳐나갔다. 고도의 균형과 깊이로 무장한 음악, 어떤 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호소력이 바흐의 음악을 계속 듣게 만드는 이유다.

바흐는 평생 대위법이라는 음악의 매뉴얼을 만들어간 사람이었다. 말년에 이르러 바흐는 그가 평생 연구한 이론을 총결산하여 <푸가의 기법>(Die Kunst der Fuge,)을 쓰기 시작했다. 14곡의 푸가와 4곡의 카논을 수록하는 중에 눈이 안 보이게 되어 최종 푸가인 제239마디에서 중단하고 미완성인 채로 후세에 전해졌다. 그 후 180년을 경과한 1927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베토벤
: 현악 4중주 작품133 ‘대푸가’

9개의 교향곡으로 관현악의 정점을 돌파한 베토벤이 최후의 힘을 다해 집중한 것은 현악 4중주였다. 교향곡이 악기들의 최대공약수라면, 현악 4중주는 악기의 최소공배수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베토벤은 다섯 개의 현악 4중주를 썼다. 그중에서 현악 4중주 13번은 1825년에 작곡하여 이듬해 3월에 슈판치히 4중주단의 연주로 초연했고 1827년에 갈리친 후작에게 헌정하면서 출판했다. 원래 6개의 악장으로 되어있었는데 마지막 6악장이 ‘대푸가’라는 어마어마하게 격렬하고 현대적인 곡이었다. 출판사가 이대로 출판했다가는 아무도 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베토벤을 설득하여 6악장을 쉬운 알레그로로 대체하고 ‘대푸가’ 부분은 작품133으로 독립시켰다. (요즘은 베토벤의 정신을 존중하여 6악장에 ‘대푸가’를 배치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곡을 들어보면 과연 이 곡이 베토벤 시대에 나올 수 있는 곡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처음 듣는 사람은 현대음악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미래 지향적인 곡이다. 원래 베토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음악에 매달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베토벤의 팬은 흥미 위주의 음악 청중이 아니라 진지한 음악 청중이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선 뭔가를 알아야 했고, 들으면서도 고민해야 했는데, ‘대푸가’는 그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곡이었다.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형태로 시대를 돌파하려고 한 베토벤의 의지가 느껴지는 곡이다.



피아졸라
: 신기한 푸가

“나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둘로 나뉘었다. 하이드릴 때는 탱고를, 지킬 박사일 때는 심포니를 작곡한다.” 이 말은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새로운 탱고 혁명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피아졸라가 활동하던 1900년대 중반만 해도 민속 음악과 클래식을 양손에 쥐겠다는 것은 마치 한복과 턱시도를 같이 입겠다는 말과 같이 들렸다. 탱고는 북적거리는 선술집에서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었을 뿐, 콘서트홀에서 순수한 감상을 위해 연주되는 음악이 아니었다. 그러나 피아졸라는 ‘발을 위한 탱고’를 ‘귀를 위한 탱고’로 바꾸고 싶어 했다. 피아졸라는 바흐 음악을 사랑했다. “자신이 누구였으면 좋겠는가?”라고 기자가 묻자 “바흐! 그렇지만 너무 고생하기는 싫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기존의 탱고 음악의 감성을 바흐가 정리한 대위법 구조 속에 담겠다는 생각으로 <전주곡과 푸가> <탱고풍의 푸가> 그리고 이 곡 <신기한 푸가>(Fuga y Misterio) 등을 선보였다. 1968년에 피아졸라의 곡을 지휘한 파울 클레츠키는 “푸가로 춤을 추고 싶다는 충동을 처음으로 느꼈다.”라며 극찬했다. 원래 피아졸라가 1968년에 초연한 오페레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 중에 나오는 곡이었는데, 곡의 완성도가 높아서 독립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원곡의 편성은 바이올린, 피아노, 반도네온, 플루트, 기타, 자일로폰, 콘트라베이스로 되어 있지만 수많은 편곡 버전이 있다.

書藝이야기

甲骨文(갑골문자)와 금문(金文)

이종민 사)한국서협 울산지회장

原形	象				例				釋意	
象形	a							(手) (足)	人或全部	
	b									或旁像 動物主體
	c				中					符號 自然物體
	d									符號 人工器物

(갑골문자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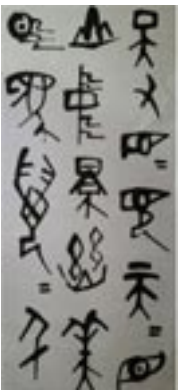
(갑골문자예시2)

甲骨文(갑골문자) - 한자서예의 시초가 되다

갑골문자는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이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다. 기원전 1000년 무렵 중국 상(商)나라 때 점을 치던 문자로, 중국 고대 상(商·BC 1600~1046년)나라의 수도인 은허(殷墟·허난성 안양현)에서 1899년 처음 발견된 이후 중국 최초의 문자로 인정받아 왔다. 발견된 지역의 명칭을 따라 『은허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갑골 문자는 상



(갑골문자)



(갑골문자로 집성한 작품 예시
-이종민작)

형 문자이며, 한자의 초기 형태에 해당된다. 갑골문(甲骨文)이라는 명칭은 주로 상나라 말기(기원전 13세기~기원전 11세기)에 사용되었다. '갑(甲)' 즉 거북이의 등딱지와 '골(骨)' 즉 동물의 뼈에 새겨졌다는 데에서 유래하였고 이는 중국 고대 문명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한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갑골문은 처음에 제사와 점복(점을 치는 행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상나라의 왕이나 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점을 쳤었다. 그리고 이 점괘를 거북이 등딱지나 소, 사슴 등의 견갑골에 새겨 넣었다. 점치는 방식은 먼저 뼈에 구멍을 뚫고 불로 달군 금속으로 구멍을 지저 금이 가게 한 뒤, 그 금의 모양을 보고 해석하는 식이었다. 이후 점괘의 질문과 해석, 결과를 뼈에 새겨 넣었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져 오는 갑골문이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왕이 사냥을 나가도 되는가?", "이 제사가 조상신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주로 등장한다. 이러한 질문과 결과를 기록한 갑골문은 상나라 사람들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기록이다. 갑골문의 문자는 오늘날 한자의 조형 원리인 상형, 지사, 회의, 형성 등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상형 문자가 많다. 상형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본떠 만든 글자들이다. 예를 들어 태양은 원형 안에 점을 찍은 모양(☉)으로, 사람은 두 팔과 다리를 펼친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간략화되고 추상화되어 오늘날의 한자로 발전하게 되었다. 갑골문은 총 4,500자 정도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 현재 해독이 가능한 문자는 약 1,500자 정도이다. 이는 현대 한자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문자와 언어의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학자들은 갑골문의 해독을 통해 상나라의 역사, 제도, 종교, 천문, 농업 등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갑골문은 단순히 문자 체계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 이전의 인간 사고와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골문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사물과 개념을 표현하고 기억하며 기록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곧 인간 사고방식의 발전을 보여주는 귀중한 인류학적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1900년대 초, 중국 허난성 안양 지역에서 갑골문이 본격적으로 발굴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1899년, 한약재로 쓰이던 '용골(龍骨)'이 사실은 갑골문이 새겨진 고대 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왕국유(王國維), 나철(羅哲), 동진우(董作賓) 등 수많은 학자들이 갑골문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갑골문의 발견은 중국 고대사를 문자로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되면서, 중국 문명의 연속성과 자생성을 주장하는 데 강력한 논거로 작용하였다. 오늘날에도 갑골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현대 기술을 통해 더 많

은 문자의 해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고대 사회의 모습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갑골문은 단순한 문자 기록을 넘어서서,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 신앙, 정치 체계, 사회 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타임캡슐'인 셈이다. 갑골문의 특징은 뼈위에 글씨를 쓴 다음 칼로 어 새겼기 때문에 필획이 가늘면서도 직선적이고 예리하다. 그리고 원시 그림문자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회화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이는 중국에서 시작된 서예 예술의 초기 모습과 같다. 갑골문자는 한자의 시초이며 오늘날 한자서예에서 사용하는 모든 한자의 조상격이기도 하다. 갑골문에 나타난 상형성과 선의 흐름, 조형 감각은 한자 서예의 뿌리를 형성하면서 금문(청동기문자)-소전-예서-해서-행서-초서체의 발달로 이어졌다. 특히, 서예에서 중요시되는 획의 리듬, 균형, 기세(氣勢) 등이 갑골문자의 조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한자 서예는 단순히 글자를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 하나 하나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조형미를 계승·발전시키는 예술이다. 그런 면에서 갑골문자는 한자 서예의 근원적 뿌리이자 원형적 미의식을 제공한다. 오늘날에도 그 형태적 아름다움과 상징성으로 인해 서예 예술의 중요한 자산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의 한자 서예에서는 갑골문자의 고풍스러운 형태와 독특한 미감을 창작 소재로 삼아 전통성과 창의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 서예가들은 갑골문을 예술적 원형으로 삼아 서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적 작품을 제작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갑골문은 중국 문자와 문명의 기원을 밝히는 핵심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자 문화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시각화하고 사회적 기억을 문자로 남겨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갑골문은 단순한 고문자가 아니라 인류 지성의 한 축을 형성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金文(금문) - 금속공예 속에 새겨진 역사의 기록물로 남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금(金)은 청,동을 말한다. 따라서 금문(金文)은 청동기와 같은 금속기에 새긴 문자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의 금속에 새긴 글씨는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고 역사, 문화, 정치, 예술을 모두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는 청동기, 철기, 금, 은 등 다양한 금속에 글씨를 새겨 역사를 남겼다. 또한 금문으로 왕권을 과시하기도 하였고 종교나 의례를 기념하는 데도 사용해 왔다. 금문의 역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아래와 같이 설명해 본다.



(금문탁본)

◆ 청동기에 새긴 명문(銘文): 금속에 처음으로 글씨를 새기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금속에 글씨를 새긴 역사는 주로 상(商)나라 말기에서 서주(西周) 시기(기원전 11세기)에 시작된 청동기 명문(銘文)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청동기는 단순한 도구나 무기가 아니라 왕실 의례, 제사, 공신에 대한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글씨는 주로 청동기 표면 내부에 음각으로 새겨졌다.

대표적으로 사모호(司母戊鼎) (세계 최대의 청동 제기로 그 안에는 ‘사모를 위해 만든 그릇’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조상의 제사를 위한 기물임을 알 수 있다.)와 모공정(毛公鼎) (주나라 말기의 청동기로 내부에 497자의 긴 글이 새겨져 있으며, 주나라 정치 제도와 왕명(王命)을 담은 소중한 사료이다.)

이 시기의 명문은 일반적으로 왕의 명령, 제사 목적, 공신 칭송 내용이 들어 있으며 글자 수는 짧지만 함축적이고 권위적인 문체이다.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인다.

◆ 진한(秦漢) 시대: 금속에 새긴 국가 통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에는 금속, 특히 동전, 봉니(封泥), 금속 명패 등에 글씨를 새겨 행정 관리와 통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 동전에 새긴 문자

진나라의 “반량전(半兩錢)”, 한나라의 “오수전(五銖錢)” 등에는 중앙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문자(예: 篆書)가 새겨져 있었다.

동전은 경제적 수단인 동시에, 황제의 권위와 통일된 질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 도장과 봉니

관리나 황제가 사용한 인장(도장)도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이름, 관직, 명령 등이 새겨졌다. ‘한신지인(漢信之印)’ 같은 봉니는 정치 권력의 상징이었다.

◆ 당송(唐宋) 시대: 예술과 기록의 융합

이 시기에는 금속에 새긴 글씨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예술성과 서예의 아름다움을 갖추기 시작했다. 글씨체도 점차 다양해지며 예서(隸書), 행서(行書), 초서(草書) 등이 사용되었다.

◆ 금속 경전판

불교의 유입과 함께, 불경을 금속판에 새기는 작업이 늘어났다. 금속에 불경을 새기는 것은 경전을 영구히 보존하고 공덕을 쌓는 의미를 지녔다.

예: 금강경(金剛經)의 철판 각본, 동판 부조 등이 널리 퍼짐



金文(모공정외관)



金文(모공정내관)

◆ 명문 기념비와 금속 간판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제작된 묘지명(墓誌銘)을 납판, 철판 등에 새겨 무덤에 넣었다. 이 글들은 고인의 생애와 업적, 가족 관계를 기록한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동시에 당시 유행한 서체와 글씨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예술 유산이기도 하다.

◆ 명.청(明清) 시대: 공예와 권력의 상징

이 시기에 금속 글씨는 공예, 왕실 권위, 기념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다. 금속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교한 조각과 함께 문자가 새겨졌으며, 도검, 방패, 종, 종묘제기 등의 의례 용품에도 사용되었다.

◆ 황제의 어지(御旨)를 새긴 금속판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나 칙서 일부는 동판이나 은판에 새겨 공식적이고 장엄하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황제 권위의 시각적 표현으로 지방 관료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 청동종(鐘)과 명문(銘文)

종이나 북 같은 제기에는 제작 시기, 제작자, 용도 등을 담은 글귀가 세밀하게 새겨져 있다.

‘명 태조 주원장의 대종(洪武大鐘)’에는 천명을 받들고 백성을 보살피는 뜻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문화적 상징성과 현대적 가치로서의 금문(金文)은 금속이라는 영구적 재료 위에 새겨진 글씨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가치’를 가진 콘텐츠로 여겨졌다. 특히 왕조 시대에는 금속에 새긴 글씨가 국가와 종교,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또한, 금속에 새겨진 글씨는 서예와 조각이 결합된 복합 예술로 진화했다.

서체의 다양성과 조형미가 중요해졌으며 일부는 미술품이나 수집품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는다. 금속 명문(銘文)은 땅속에서도 오래 보존되기 때문에 역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출토된 청동 명문은 고대 정치체제, 언어 변천, 사회 문화 연구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금속에 새긴 글씨는 단순한 문자기록을 넘어서 시대를 반영하는 정치적 선언, 예술적 표현, 문화적 유산이었다. 청동기의 명문부터 근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전통은 금속이라는 단단하고 불변하는 재료를 통해 글자의 영속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까지도 이들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과 동시에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나경의 이지아트(EasyArt)컬렉션44

컨템퍼러리아티스트의 작품세계 22

(동시대 미술의 혁명 / 표현 기법의 발견)

오나경 서양화가/예술칼럼니스트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와 정교화는 동시대 문명의 가장 큰 자산이자 특징이다. 이 시대에는 단 한번 클릭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몇 번의 터치로 원하는 것을 생성할 수가 있는 디지털 마법이 존재한다. 인공의 지능이 인간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신 감당해주고 여러 가지 문화에 편의를 제공한다. 심지어 인간이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면서 인공지능은 일부 지배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예술 분야도 다르지 않다.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작업을 손쉽게 해주는 기제가 무궁무진해졌다. 무엇보다 참으로 쉽고 빠른 시대가 되어 예술가들의 작업도 수월해지고 능률적이 되어간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인간의 손끝’이 귀하고 가치롭게 보이는 것일까. 디지털 기술이 놀라울 만큼 여러 종류의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말이다. 그렇다. 우리는 과정이 간단하면 완성도나 가치도 가벼워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반응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하며 무한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만들고 변형할 수도 있어서 결국 재미거리나 흥미요소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음도 안다. 그래서 특히 예술 분야는 디지털

도구가 발달할수록, 그것들이 재현해낼 수 없는 손끝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인간의 손끝에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감정과 의식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머리와 가슴이 협업하고 손을 움직여 만든 것은 반복으로 숙련되어 그 과정 끝에 결국 아름다운 결과물을 창조한다. 거기에 더하여 기계가 흉내 내지 못하는 불균형 속의 조화는 또 다른 의미의 예술적 완성이다. (편의상 고전적인 방식의 수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손끝예술가’라고 하겠다.) 이 ‘손끝예술가’들은 때때로 경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구도의 과정 같은 지난한 수작업으로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동시대의 놀라운 조각가 ‘론 뮤익’이 그런 손끝예술가다. 극사실주의 조각의 정점에서 엄청난 수고로 극도의 디테일을 선보이는 그의 작품들은 볼 때마다 그 정교하고 묘한 감동의 깊이에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사진 이미지로는 가늠할 수 없는 작품의 다양한 크기도 실견해야 비로소 알게 된다.

크든 작든 각각의 작품은 지나치게 리얼하다. 그의 작품은 한 올 한 올 심었을 수많은 머리카락과 눈썹, 피부의 주름과 미세한 결, 숨구멍까지 그 정교함이 극을 치닫는

다. 더욱 경이로운 점은 그 섬세함 너머로 인물이 가진 ‘삶의 서사’가 제각각 진하게 읽힌다는 것이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그들의 행색과 눈빛, 표정, 자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세세하게 풀어낸다. 단순히 극사실주의 표현의 ‘정교함’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깊이다. 그의 작품 여기저기서 우리는 언젠가 겪었을 각자의 감정과 표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엄청난 미학적 이슈를 만들며 아시아 지역 최초로 연 석 달간의 개인전을 이달 중순에 마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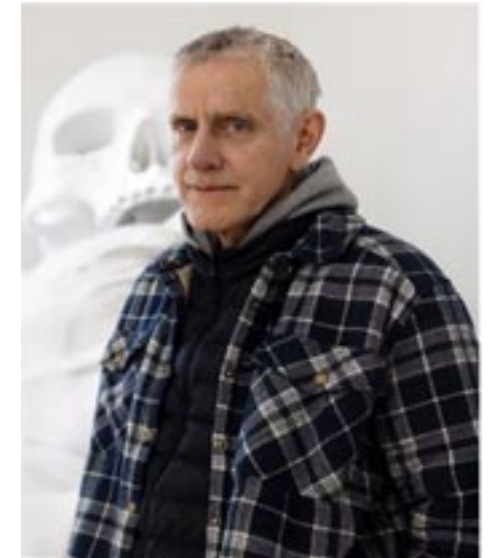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만연한 시대에 손끝으로 묵묵히 이루어낸 그의 특별한 표현법과 그가 제공하는 일상의 감정들을 만나볼 것이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인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지극히 수공적인 표현법의 고요함 속에서 감정을 읽고 삶과 죽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의 지능이나 어떠한 첨단 기술의 유혹에도 초연하기 만한 점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참신한 혁명이다. 이제 거창한 상상력이나 방대한 담론 없이 극사실적인 묘사와 초현실적인 크기의 조화로 작품에서 철학적 사색을 이끌어 내는 이 시대 조각 거장 론 뮤익의 정직한 시선과 생각의 깊이를 따라가 본다.



▲ 론 뮤익 / 극사실 인체조각으로 만나는 인간의 삶과 죽음.
확대와 축소로 마법 같은 하이퍼리얼리즘을 구사하며 인간의 감정을 풀어낸다.

◆ 론 뮤익 & 극사실 인체 조각

#. 존재의 깊이를 바라보는 조각가



▲ 론 뮤익 Ron Mueck (1958년~ 호주),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 1986년부터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 극사실적인 인간 형상 속에 감정의 깊이를 정교하게 노출시킨 작품으로 삶과 죽음의 미학을 묵묵히 완성하는 그는 철학자 같은 예술가다.

론 뮤익(론 뮤엑 Ron Mueck)은 1958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하는 극사실주의 조각가다. 인형극 및 인형 제조를 하던 독일계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형, 꼭두각시, 모형을 만드는 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디자인과 조각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영향으로 처음에 장난감 제조 일에 뛰어들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1980년대에는 어린이 TV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와 ‘프레글 락’에서 일했으며 영화 산업에서도 퍼펫 제작자로 경력을 쌓았다. 이렇게 그는 1979년부터 1996년까지 TV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모형과 인형을 제작하고 영화

특수 분장 일 등을 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40대가 다 되어서였다. 1996년 조각 작품 <피노키오>가 영국의 전설적인 아트 딜러이자 컬렉터인 ‘찰스 사치’의 눈에 들어 전격적으로 작품 의뢰를 받게 되면서 부터다. 그는 20년간 인형제작을 하며 습득한 섬세한 모델링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단숨에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론 뮤익은 전통적인 예술교육 없이, 머리와 가슴과 손끝으로 자신의 표현 기법을 개발하고 실험함으로써 스스로 고유의 스타일을 찾아 천착하는 조각가가 되었다.

1997년 뮤익은 데미언 허스트, 트레이시 에민 등과 함께 영국 컨템퍼러리 아트의 개막을 알린 ‘센세이션’ 전시에 나체로 누워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실제크기보다 축소해 조각한 <죽은 아빠 Dead Dad>를 출품했다. 충격적이고 유별난 작품들 사이에서 이 조용하고 정교한 주검은 진정한 걸작으로 평가되었다. 론 뮤익은 처음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부터 동시대미술 작가들이 작품보다 작가 자신을 요란하게 브랜딩 하면서 놓치고 있는 진지함을 장착하고 있었다. 또한 치밀하게 완성해가는 그의 조각에는 언제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배어있다.



▲ 론 뮤익 Ron Mueck, ‘죽은 아빠 Dead Dad’, 1996-1997. Mixed media, 20.0x38.0x102.0cm, ©Thaddaeus Ropac.

론 뮤익은 과묵한 작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작업을 묵묵히 이어나갈 뿐이다. 그가 지극히 사실적인 작품들을 오

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탄생시키는 과정은 명상과도 같은 신성함과 감동을 준다. 3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 고작 48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의 작품은 한손 한손 정성 가득하며 극도의 기술적 완성도와 정교함을 담고 있다. 대량 생산이 넘쳐나는 시대에 손맛 가득한 작품의 가치는 색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작업과정은 가벼움에 대한 일종의 저항처럼 느껴지며 진짜를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을 충족시킨다.

뮤익은 기억, 몽상,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연민을 담은 인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해 표현하는 조각가다. 오로지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유지하면서 초정밀하게 조각된 그의 작품들은 크기의 세심한 조정과 인체의 해부학적인 정교함, 인물의 표정과 상태의 디테일한 묘사에 대상의 감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놀랍도록 정교한 조각적 테크닉과 표현력으로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의 공정으로 완성되는 그의 조각은 단순히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외형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시대의 자화상을 마주하게 한다.

#. 론 뮤익의 작품 세계

론 뮤익 작품은 직접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다. 혹자는 모든 작품이 다 그렇지 않으나할지 모른다. 그런데 동시대 미술, 특히 조소 영역에서는 작가가 직접 재료를 시종일관 만지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동시대 최고의 판매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조각가 ‘제프 쿤스’의 경우, 제작과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일단 ‘아이디어’를 내고 ‘공장’에서 기술자, 조수들을 고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다. 물론 작업 과정도 매우 효율적이다. 디지털 기술과 온갖 편리한 장비가 동원되고 복제도 쉽다.

론 뮤익처럼 인체 작품을 주로 하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역시 아이디어를 내고 전문 기술자들에게 의뢰해 작품을 만든다. 실제 카텔란의 밀랍인형을 만든 조각가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낸 적도 있다. 그러나 동시대미술에서는 아이디어가 중요한지 오래라 소송은 기각됐다.

작가가 직접 작품을 '조각'하지 않고도 '조각가'라고 불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론 뮤익의 작업 과정은 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던 고대나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론 뮤익 조각은 인체의 세밀한 디테일에 반응하며, 압권인 것은 실제보다 더 정교한 극사실의 표현이 주는 몰입감이다. 게다가 대상의 성격이나 감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조정되는 작품의 크기 또한 다양하게 활용된다. 실제 크기를 축소해 돌아가시기 전의 아버지에게서 느낀 왜소함을 강조하고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 자소상의 크기를 실물보다 확대한다. 일상에 숨은 감정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셈이다. 또한 론 뮤익은 조각품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을 들인다. 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씩 소모한다. 시간과 물리적 에너지를 남다르게 쏟아 붓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 주제는 매우 사적이면서도 많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폭넓게 닿아있다. 느리게 그러나 정성을 다해 완성한 작품이어선지 그의 작품은 대부분 전율 섞인 공감을 유발한다. 그의 작품은 관람객들 각각을 가장 내밀하고 섬세한 기억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의 작업이 인간의 가장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요 속에 흐르는 존재의 깊이를 예리하게 파악해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상 이상의 힘을 가졌듯이 론 뮤익의 작품에 응축된 시간과 에너지는 언제나 엄청난 잠재력으로 존재하며 보는 이의 폐부를 저격할 것이다.

뮤익의 첫 개인전은 1988년 런던의 앤서니 도페이 갤러리에서 이루어졌다. 5m 높이의 ‘소년(Boy, 1999)’을 밀레니엄 돔에서 선보였으며 이후 2001년에 제49회 베네치아 비엔날레(49th Venice Biennale)에 전시되었다. 현재는 오르후스에 위치하는 ARoS 오르후스 미술관의 로비에 위치해 있다.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뮤익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2년간 작업하며 이 기간 동안 ‘엄마와 아이 Mother and Child’, ‘임산부 Pregnant Woman’, ‘보트 위의 남자 Man in a Boat’, ‘포대기에 싸인 아기 Swaddled Baby’ 등의 걸작들을 제작했으며, 이 작품들을 선보인 2003년의 전시를 통해 그의 명성은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그는 2013년 파리의 ‘까르띠에 현대미술관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프로아 예술센터 Fundación Proa’, 리우 데 자네이루 현대미술관(미술관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객을 맞이하였다), ‘상파울루 주립그림전시관Pinacoteca do Estado de Sao Paulo’에서 전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테세우스 신전, 빈 미술사 박물관, 핀란드 탐페레의 사라 힐덴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에서도 단독 전시가 있었다. 2025년 4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7년 작인 ‘매스’를 위시한 주요 작품 10점을 전시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 작품 '매스'를 위시한 저작물 소재들과 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 '론 뮤익'

● ‘론 뮤익’ 작품의 특징

첫 번째는 론 뮤익의 조각 작품이 극사실주의라는 것이다. 하이퍼리얼리즘 조각의 대가로 세계 정상에 있다. 극사실주의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미술 경향으로 주로 사물을 생생하고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하이퍼리얼리즘은 단지 섬세함이라 표현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정교함이 있다.

두 번째로는 론 뮤익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매우 심도 깊은 성찰이라는 것이다. 그는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순환과정을 시각화하고 예리한 감정의 포문을 공략해 일상에 숨은 감정의 정체를 드러내며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세 번째는 그의 인체 작품은 실제 크기가 없다. 모두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 있다. 론 뮤익은 대부분의 극사실주의 조각가들과 다르게 인체조각의 경우 일부러 등신대를 피하고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관객을 당혹하게 한다. 크기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사람은 매일 만나므로 등신대의 인체형상은 그다지 흥미로워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인체의 크기를 조정하게되면 대상의 캐릭터나 감정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삶과 죽음, 인간의 감정을 주제로 폴리에스터 수지, 유리 섬유, 실리콘, 합성 머리카락, 합성 폴리머 페인트 등의 재료를 이용해 인체 조각의 크기를 실물 대비 확대, 축소한 '론 뮤익'의 하이퍼리얼리즘 작품들

● ‘론 뮤익’의 작업 과정

조각(彫刻, 영어: sculpture)은 미술 감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만들어진 입체 작품을 의미한다. 한자어의 원래 뜻을 따져 굳이 분류하자면 론 뮤익의 작업 방식은 '조소彫塑' 가운데, '조조塑造' 기법이다. 단단한 소재를 깎아서 조형하는 것은 '조각', 가소성 있는 소재를 붙여가며 조형하는 것이 '조조'다. (이 때 조소는 일반적으로 감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같은 입체 조형이라도 생활 용구로 사용되는 공예품이나 도예품 등 실용성 있는 것들은 조소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조각과 조조 두 개의 단어 머릿글자를 조합해 입체조형의 총칭인 조소로 불러왔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나, 그것들을 사용하여 사물의 형을 만드는 기술도 단순히 자의적(字義的)인 해석으로 분류하거나 뜻을 붙이는 것이 곤란하게 되면서 입체조형의 대명사처럼 ‘조각(彫刻 sculpture)’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었다. 그가 예의 ‘손끝예술가’로서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종이에 드로잉을 한다. 그 다음 점토 등의 가소성 재료로 원형을 빚는다. 그 후 원형을 재현하기 위해 몰드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 때 큰 규모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몰드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몰드가 완성되면 실리콘, 아크릴,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작품에 디테일을 추가한다. 피부의 텍스처, 머리카락, 정맥 등 매우 작은 부분까지도 미세하게 표현하여 놀라운 사실감을 장착한다. 모든 부분이 완성되면 세심하게 그 모듈을 결합하고, 필요한 경우 마지막 수정을 시작한다. 실은 이 과정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작가는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작품이 완성된다.

그의 작업을 직접 지켜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그의 작업 방식과 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 일

단 그는 작업할 때 말이 없다. 지루하게 모종의 동작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 작품은 느리게 형태를 갖춰간다. 일정한 리듬과 간격, 조용한 집중이 흐르는 공간에서는 뮤익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머리카락을 사포로 다듬거나, 초벌 모델링에 담긴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그가 평생 만든 조각이 단 48점이라는 사실은 작업의 밀도와 집요함을 짐작하게 한다. 뮤익은 몰드가 굳는 시간을 기다리며 산책하거나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기도 한다. 어떠한 해설도 없이 그저 묵묵히 흐르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수행과도 같은 뮤익의 창작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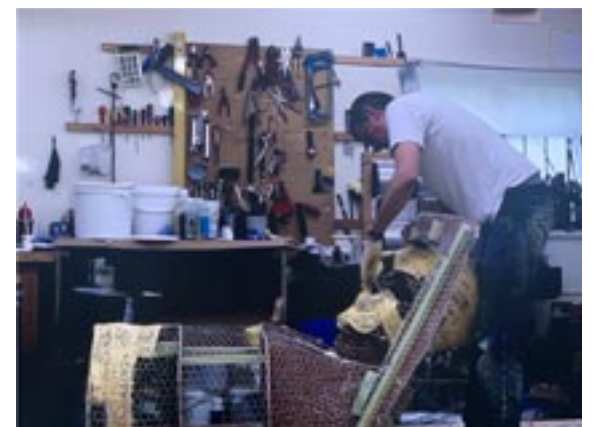
▲ 론 뮤익, 'Chicken/Man' 제작 과정, 2019-2025. HD Film, 13 mins. ©고티에 드블롱드Gautier Deblonde의 다큐멘터리 영상 중

‘치킨/맨’은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아트갤러리의 의뢰로 고티에 드블롱드Gautier Deblonde가 제작한 영상이다. 이 영상 속에는 뮤익 특유의 정밀한 조각 과정이 조용히 담겨있다. 뮤익은 인체조각의 시선, 손의 위치, 몸의 각도 하나까지도 수십 번 조율하며, 마치 실제 존재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고도 긴장감 있는 자세를 탐구해간다. 의자의 방향까지 반복해서 조절하며 '어떻게 앉아 있어야 감정이 전달될 수 있을까'를 끝까지 고민한다.



▲ 론 뮤익, 'Still Life' 제작 과정, 2013. HD Film, 48 mins. ©고티에 드블롱드Gautier Deblonde의 다큐멘터리 영상 중

론 뮤익의 조각 앞에 서면 누구나 경이로움을 느낀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사람의 눈빛과 표정, 피부 위에 자리잡은 주름 하나하나, 그 생생한 묘사는 마치 실존의 인물을 마주한 듯한 착각을 부른다. 그러나 감탄은 곧 침묵으로 바뀐다. 뮤익의 인물들은 단순히 정교한 모형이 아님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 안의 불안, 외로움, 관계의 균열 같은 감정들이 응축돼 있다. 결국 뮤익의 작업은 한 인간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한 기술이 아닌, 그 안에 숨은 삶의 결을 추출하는 신기라 할 수 있다.



▲ 론 뮤익, 'Still Life' 제작 과정, 2013. HD Film, 48 mins. ©고티에 드블롱드Gautier Deblonde의 다큐멘터리 영상 중

이미지가 손쉽게 복제되고 소비되는 시대, 뮤익이 택한 느린 조각의 방식은 오히려 더 묵직하고 참신하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반복되는 노동과 세밀한 관찰과 정교한 적용으로 탄생한 그의 조각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삶과 예술에 대한 진정성과 시간의 밀도를 환기시킨다. 그의 인물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감정과 서사를 따라가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다각도로 생각하게 된다. 론 뮤익의 조각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가 빚은 얼굴들을 마주하면 우리도 산다는 게 자신의 얼굴을 매일 조금씩 새로 빚어가는 일임을 알게 된다.

● 감정의 발견과 삶과 죽음의 미학



▲ 국립현대미술관과 카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2025년 4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아시아 최초, 한국 최초로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 '론 뮤익'의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작품은 'Mass', 2016~2017,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매스’는 각각 1미터가 넘는 해골 모형 100개를 불규칙하게 쌓아 올려, 전시되는 공간마다 다르게 설치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작품들이 완결된 서사를 지닌 것과 달리, ‘매스’는 전시에 따라 매번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질 수 있다. 2023년 프랑스 파리 카르띠에 재단 전시와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전시에서는 수평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때는 최초로 수직적인 설치 방식을 시도했다. 2016년, 작가가 파리와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을 방문하고 이 작품의 주제를 잡았다. 이전까지 인간의 존재를 축소 또는 확대만 했다면, 무덤을 보고 난 후에 존재의 개별성을 넘어 집단성에 대해 생각했고 이 생각이 구체화되어 ‘Mass’라는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개골들은 미술사 속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대중문화, 고고학에서 반복되며 상징성을 축적해 온 이미지다. 뮤익은 이를 통해 '보편적 죽음'을 불러내는데. 작품의 핵심은 죽음의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영어 'Mass'는 집단, 덩어리, 미사(종교적 의례)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작품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슬픔보다는, 죽음에 대한 경외, 역사적 참사에 대한 기억, 공동체적 상실을 감각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인간의 두개골은 복잡한 오브제다.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는 강렬한 그래픽 아이콘이다. 친숙하면서도 낯설어 거부감과 매력을 동시에 주는 존재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어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
- 론 뮤익 -



▲론 뮤익 Ron Mueck, 자소상 마스크2 'Mask II', 2001-02, ©Ron Mueck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스크 II’다. 실제보다 약 4배 크기로 확대된 얼굴은 론 뮤익의 자화상이자 초상 조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힘없이 살짝 벌어진 입과 바닥에 눌러 납작해지고 틀어진 볼, 무거운 눈꺼풀과 심란하거나 고단해 보이는 이마의 표정 주름에 숨소리까지 들릴 듯한 인물 표현의 정교함이 감탄스럽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서 보는 순간, 이 얼굴은 실체가 아닌 '껍데기'였음이 드러난다. 완벽하게 구현된 사실성은 오히려 그 속의 부재를 선명히 부각시킨다. 과연 이 얼굴이 자신의 전부일까, 아니라면 자의식을 벗어던진 진짜 '나'일까, 그도 아니라면 그야말로 껍데기인걸까? 머리카락 한 올, 눈썹 한 가닥까지 살아 있는 극사실적 묘사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미로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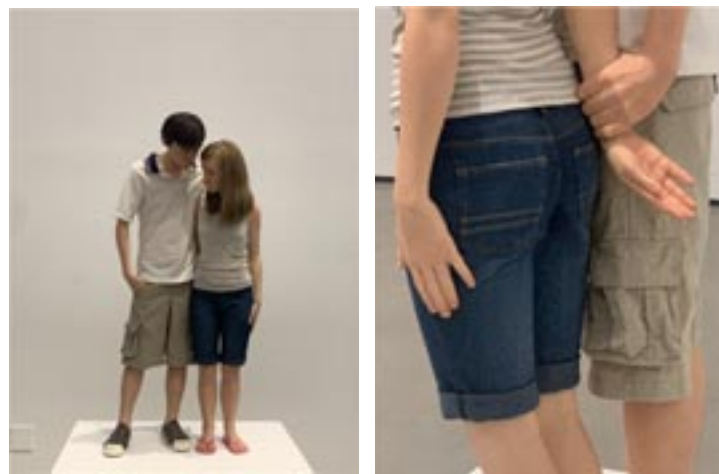
▲론 뮤익Ron Mueck, 쇼핑하는 여인 'Woman with Shopping', 2013. ©에디터 촬영(Jang Haeyeong).

‘쇼핑하는 여인’은 뮤익이 만들어 온 어머니 연작 중 하나다. 품속에 아기를 넣고 양손 가득 장을 본 '아기엄마'가 서 있다. 아기는 많이 어리다. 독립된 개체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저 아기와 연결된 '엄마'라는 역할로 존재해야 하는 때문인지 품속의 아기는 엄마에게 집중하지만, 어딘가를 보고 있는 엄마의 눈빛은 텅 비어 있다. 주인공의 존재가 위축된 만큼인지, 작품도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작은 크기다. 일상 속 여성의 고단함이 담담히 전해져 온다. 커다란 외투와 무거운 장바구니, 아기를 안은 팔, 그 모두가 그녀의 하루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세상 속에서는 전부인 엄마에게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조용히 일깨워준다. 언젠가 우리 곁 어딘가에 있었던 익숙한 누군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게 어찌면 나일 것도 같은 작품이다.



▲ 론 뮤익 Ron Mueck, 닭과 남자 'Chicken / man' 2019. ©에디터 촬영(Jang Haeyeong).

닭과 노인이 마주 보고 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배치된 치킨과 맨 사이에는 묘하게도 긴장된 기류가 있다. 닭의 날카로운 눈빛과 노인의 축 처진 어깨, 주름진 피부가 공연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상반된 추측을 유발한다. 관람자는 자유롭게 위치를 옮기며 시점을 바꿔볼 수 있다. 닭의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거나, 노인의 시선으로 닭을 응시하거나, 제3의 눈이 되어 상상을 확장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가구 아래 숨겨진 작은 라벨은 뮤익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품을 만드는 지를 보여준다. 사소한 것으로도 작품을 어필한 작가의 치밀함과 센스가 특별함으로 다가온다.



▲ 론 뮤익 Ron Mueck, 젊은 연인 'Young Couple', 2013. ©에디터 촬영(Jang Haeyeong).

‘젊은 연인’은 정면과 후면의 온도 차가 뚜렷한 작품이다. 정면에서는 다정한 연인으로 서로 속삭임을 나누는 듯하지만, 뒤편에서 보면 남성이 여성의 팔을 짚는 모습이 드러나며 전혀 다른 기류가 읽힌다. 격한 사랑일까, 애증의 관계일까, 의외의 억압일까, 구속일까. 해석은 보는 이의 몫이다. 단순한 시선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이 이 작품의 핵심이며 존재를 바라보는 조각가와 나의 시선이다. 정적 속의 감정을 술래잡기 하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어 봐도 좋겠다.



▲ 론 뮤익 Ron Mueck, 유령 'Ghost', 1998/2014. ©에디터 촬영(Jang Haeyeong).

‘유령’은 사춘기 소녀가 느끼는 불편함과 수줍음을 섬세하게 담은 론 뮤익의 초기작이다. 언뜻 몽크의 대표작 ‘사춘기’를 연상케 하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실제보다 크게 제작된 인물은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마른 몸 안에 정체모를 불안이 가득 차 넘쳐흐를 듯한 밀도를 가졌다. 이 작품은 제작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보통 조각가들이 원형을 본뜬 첫 번째 틀을 'AP(Artist Piece)'라 부르며,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버전으로 여긴다. 뮤익은 이 ‘유령’의 AP를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작했다. 정교한 손끝과 발가락의 표현, 벽에 불안하게 기대선 소녀의 미세한 긴장감은 보는 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이 작품이 조각임을 잊게 된다.



▲ 론 뮤익 Ron Mueck, 두 여인 'Two Women' 2005. 폴리에스터수지, 유리 섬유, 실리콘, 폴리우레탄, 알루미늄 와이어, 강철 울, 면, 나일론, 합성머리카락, 플라스틱, 금속 / 82.6 x 48.7 x 41.5cm (7번)

론 뮤익은 2005년작 ‘두 여인’에서 노파 둘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노파의 시선은 대화의 주제로 추측되는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다. 뮤익은 80cm 남짓한 크기의 노파들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했다. 두꺼운 스타킹과 외투, 단정한 플랫슈즈, 술이 적은 회색 머리카락, 얇고 주름진 피부 등이 모두 생생하게 표현되어있다. 뮤익의 조각은 실제 삶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지만, 단순히 시각적인 모습을 흉내 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그의 조각은 몸짓, 포즈, 표정 등 표현 장치를 통해 참으로 다양한 감정을 강렬하게 뽐어낸다. 론 뮤익의 ‘두 여인’은 기묘한 부분이 많은 작품이다. 좌대에서 무장해제된 듯한 작품이 보는 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반전 상황과, 인간의 이목구비, 의상의 디테일, 대상을 형성하는 독특한 특징들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뮤익의 탁월한 솜씨가 그대로 나타난다. 추위를 피해 몸을 조심스럽게 버티듯 서로 가까이 웅송그리고 서 있는 두 여인은 의심과 연약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표정으로 공동의 상대를 응시한다. 여성들의 작은 키는 인공물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을 만들어 보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공감하게 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서 있고, 옷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 꼭 맞게 재단되어 있다. 뮤익은 여인들의 눈 또한 섬세하게 제작하여 홍채가 보이는 놀라운 효과를 주고 있다. 실로 그의 조각은 인간의 감정과 삶의 명암을 생생히 담은 진실의 그릇이다.

07~08 2025

공연가이드

7.04 (금)	19:30	[대관공연]	2025피아니스트 임주안 독주회	소공연장	임주안
7.11 (금)	19:30	[교향악단]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대공연장	울산시립예술단
7.11 (금)	19:30	[대관공연]	김유리바이올린 독주회	소공연장	김유리
7.12 (토)	17:00	[대관공연]	울산 위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소공연장	울산위드오케스트라
7.12 (토)	14:00	[대관공연]	썸머페스티벌	야외공연장	신정색소폰예술단
7.13 (일)	17:00	[대관공연]	2025 여다교 바이올린 독주회	소공연장	여다교
7.15 (화)	19:30	[대관공연]	제103회 남구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7.18 (금)	19:30	[초청기획]	오페레타 박쥐 레처콘서트	소공연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7.19 (토)	10:00	[대관공연]	제28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소공연장	(사)한국국악협회울산광역시지회
7.20 (일)					
7.19 (토)	14:00	[대관공연]	시민극단장생포 7월 정기공연	대공연장	시민극단 장생포
7.25 (금)	19:30	[교향악단]	「희망과 감성-American Dreams & French Impressions」	대공연장	울산시립예술단
8.08 (금)	19:30				
8.09 (토)	14:00 19:00	[초청기획]	뮤지컬 지킬앤하이드(Jekyll & Hyde) - 20주년 울산공연	대공연장	울산문화예술회관, (주)밝은누리
8.10 (일)	14:00				
8.15 (금)	10:00	[대관공연]	울산광역시 광복절 기념행사	대공연장	울산광역시 총무과
8.17 (일)	16:00	[대관공연]	썸머 무비 콘서트	대공연장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8.19 (화)	19:30	[대관공연]	제4회 울산솔리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울산솔리스트앙상블
8.20 (수)	19:30	[상설기획]	뒤란 8.20.	소공연장	울산문화예술회관, ubc울산방송
8.22 (금)	19:30	[초청기획]	국립오페라단 오페레타 박쥐	대공연장	주니엔테테인먼트
8.23 (토)	15:00				
8.22 (금)	19:30	[대관공연]	제17회 울산 클래식음악제	소공연장	울산음악협회
8.23 (토)					
8.24 (일)	19:30	[대관공연]	GS솔로이스츠 제6회 정기연주회[오르간]	소공연장	GS솔로이스츠
8.26 (화)	19:30	[합 창 단]	뮤직에세이 <여름을 보내다>	소공연장	울산문화예술회관
8.27 (수)	19:30	[상설기획]	뒤란 8.27.	소공연장	울산문화예술회관, ubc울산방송
8.29 (금)	19:30	[교향악단]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Summer Night Gala Concert」	대공연장	울산시립예술단
8.30 (토)	17:00	[대관공연]	2025 엘댄스컴퍼니 이야기	소공연장	엘댄스컴퍼니
8.31 (일)	14:00	[대관공연]	엄영진판소리국악연구회 정기연주 "풍류가객 소리담"	소공연장	엄영진판소리국악연구회

07~08 2025

전시가이드

7.2.~7.7.연목회	6일간	제 1전시장	제11회 연목회전
7.2.~7.7.개인	6일간	제 2전시장	제2회 주분교 문인화전
7.2.~7.7.울산서화예술진흥회	6일간	제 3전시장	제5회 울산 부채바람향기전
7.2.~7.7.개인	6일간	제 4전시장	제30회 김선주 개인전
7.9.~7.14.울산서예가협회	6일간	제 1전시장	제18회 먹물향기전
7.9.~7.14.울산환경미술협회	6일간	제 2전시장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7.9.~7.14.개인	6일간	제 3전시장	재담 김복득 서예전
7.9.~7.14.창작미술인협회	6일간	제 4전시장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7.16.~7.28.울산제일일보	13일간	제 1,2,3,4전시장	제13회 울산국제 목판화페스티벌
7.30.~8.4.울산서도회	6일간	제 1,2전시장	제52회 울산서도회 한중교류전
7.30.~8.4.울산인물작가회	6일간	제 3전시장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7.30.~8.4.필묵의 정충동	6일간	제 4전시장	제5회 필묵의 정충동전
8.6.~8.11.울산서예협회	6일간	제 1,2,3전시장	제29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8.13.~8.18.울산사진작가협회	6일간	제 1,4전시장	제29회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8.13.~8.18.울산사진작가협회	6일간	제 2전시장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8.13.~8.18.울산사진작가협회	6일간	제 3전시장	제33회 울산 전국사진 공모전
8.20.~8.25.울산구상작가회	6일간	제 1전시장	제24회 울산구상작가회전
8.20.~8.25.개인	6일간	제 2전시장	제4회 김리현 개인전
8.20.~8.25.울산민화예술협회	6일간	제 3전시장	제5회 울산민화예술협회전
8.20.~8.25.개인	6일간	제 4전시장	김창한 개인전
8.27.~9.1.개인	6일간	제 1전시장	연재 정도영 서예전
8.27.~9.1.개인	6일간	제 2전시장	조춘만 사진전
8.27.~9.1.정토사	6일간	제 3,4전시장	정토사 문화교실 민화전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Ulsan Culture & Arts Center

- 내성균
- 슈퍼균
- 아노균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 2025 피아니스트 입주안 독주회 19:30	

● 2025 피아니스트
임주안 독주회 19:30

6	7	8	9	10	11	12
					2집자는 숲 속의 미녀 19:30	울산 위드 오펜스트라와 함께하는 <장소년 협주곡의 밤> 17:00
					김유리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샘머페스티벌 14:00

● 김유리 바이올린 독주회 10:30

● 썸머페스티벌 14:00

13	14	15	16	17	18	19
2025 여다교 바이올린 독주회 17:00		2제103회 남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오페라티 빅주 렉처콘서트 19:30	- 제28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 시민극단 장생포 7월 정기공연 14:00

● 오페레타 박주 렉처콘,
19:30

● 오페레타 박쥐 레치콘서트 19:30
● 제28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 시민극단 장생포
7월 정기공연 14:00

20	21	22	23	24	25	26
● 제28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 회랑과 감상- American Dreams & French Impressions 19:30	

● 제28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American Dreams &
French Impressions
19:30

27	28	29	30	31
----	----	----	----	----

※ 「국민영양」의 주축이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이영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Ulsan Culture & Arts Center

- 대가족
- 소가족
- 이혼가족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Jekyll & Hyde) - 20주년 울산공연 14:00 / 19:00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Jekyll & Hyde) - 20주년 울산공연 19:30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Jekyll & Hyde)
- 20주년 울산공연
14:00 / 19:00

- 20 - 2025년 10월 19일 19:30

10	11	12	13	14	15	16
● 뮤지컬 자켓앤하이드 (Jekyll & Hyde)					● 울산광역시 광복절 기념행사 10:00	

● 울산광역시
관북절 기념행사 10:00

17	18	19	20	21	22	23
● 샘머 무비 콘서트 16:00		● 제4회 울산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 토론 8. 20. 19:30		● 국립오페라단 오페레타 박쥐 19:30	● 국립오페라단 오페레타 박쥐 15:00
					● 제17회 울산 클래식음악제 19:30	● 제17회 울산 클래식음악제 19:30

국립오페라단 19:30
국립오페라단 15:00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오페레타 박주 오페레타 박주 15:00

● 제17회 울산 클래식음악제 19:30

19:30

24	25	26	27	28	29	30
● GS솔이스츠 제6회 정기 연주회 [오르간] 19:30		● 뮤직에세이 <여름을 보내다> 19:30	● 뒤란 8.27. 19:30		● 한 여름밤 길라 콘서트 -Summer Night Gala 17:00	● 2025 엘댄스 컴퍼니 이야기

- 한여름밤 갈라콘서트
- 2025 엘댄스컴퍼니 이야기

● 한여름밤 갈라 콘서트
-Summer Night Gala

한여름밤 갈라 콘서트
-Summer Night Gala

31 ● GएमЭजिफास्리कुअय्गुह्वि
जगिअय्जु-फुल्लगिअक सुलिअम् 14:00

정기연주 "플루트가객 소리담" 14:00

※ 「공영이정의」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일정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상설전시장 ● 야외공연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 2제11회 연목화전

2제11회 연목화전

2제11회 연목화전

2제11회 연목화전

2제11회 연목화전

2제11회 연목화전

2제11회 연목화전
-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6	7	8	9	10	11	12
2제11회 연목화전	2제11회 연목화전	제18회 먹물향기전	제18회 먹물향기전	제18회 먹물향기전	제18회 먹물향기전	제18회 먹물향기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제2회 주변고 문인화전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제5회 울산 부채바림향기전	재담 김복득 서예전	재담 김복득 서예전	재담 김복득 서예전	재담 김복득 서예전	재담 김복득 서예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30회 김신주 개인전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13	14	15	16	17	18	19
제18회 먹물향기전	제18회 먹물향기전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울산환경미술협회 영남교류전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재담 김복득 서예전	재담 김복득 서예전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제17회 창작미술인협회전					

20	21	22	23	24	25	26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27	28	29	30	31		
제13회 울산국제	제13회 울산국제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목판화페스티벌	목판화페스티벌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상설전시장 ● 야외공연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제17회 울산인물작가회전
-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제5회 필묵의 정중동전

3	4	5	6	7	8	9
제52회 울산서도회	제52회 울산서도회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한중교류전	한중교류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10	11	12	13	14	15	16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서예대전

17	18	19	20	21	22	23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9회 울산광역시	제24회 울산구상작가회전	제24회 울산구상작가회전	제24회 울산구상작가회전	제24회 울산구상작가회전	제24회 울산구상작가회전
사진대전	사진대전	사진대전	사진대전	사진대전	사진대전	사진대전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5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33회 울산 전국사진공모전	제33회 울산 전국사진공모전	제33회 울산 전국사진공모전	제33회 울산 전국사진공모전	제33회 울산 전국사진공모전	제33회 울산 전국사진공모전	제33회 울산 전국사진공모전

24	25	26	27	28	29	30
			연재 정도영 서예전	연재 정도영 서예전	연재 정도영 서예전	연재 정도영 서예전
			조춘만 사진전	조춘만 사진전	조춘만 사진전	조춘만 사진전
			정토사 문화교실 민화전	정토사 문화교실 민화전	정토사 문화교실 민화전	정토사 문화교실 민화전
31	연재 정도영 서예전					
	조춘만 사진전					
	정토사 문화교실 민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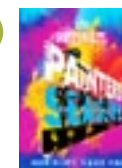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역 공연&전시 정보

중구문화의전당

공연	공연	공연	상영	공연	공연
					
우크라이나 유니온 챔버 오케스트라 7. 3.(목) 19:30 전석 1만원 (8세 이상 관람가)	항가람 콘서트 7. 18.(금) 19:30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8세 이상 관람가)	2025 렉처콘서트 조우 <세비아> 7. 22.(화) 19:30 전석 1만원 (8세 이상 관람가)	아트 온 스크린 7월 <인형극-피노키오> 7. 29.(화) 19:30 전석 무료 (8세 이상 관람가)	튜즈데이비치클럽 콘서트 8. 22.(금) 19:30 전석 2만원 (8세 이상 관람가)	아트 온 스크린 8월 <발레 지젤> 8. 26.(화) 19:30 전석 무료 (8세 이상 관람가)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	공연	상영	공연	공연
				
샌드아트로 만나는 <헨젤과 그레텔> 7. 2.(수) 19:30 전석무료	퍼니 클래식 7. 9.(수) 19:30 전석무료	(영화) 헬로카봇울스타스페셜 7. 12.(토) 11:00, 15:00 전석 무료 (전체관람가)	잔디마당콘서트: 응답하라1988 7. 12.(토) 19:30 전석무료	레퀴엠 음악극 <광복(光復)의 불꽃> 7. 16.(수) 19:30 전석무료
공연	공연	공연	전시	전시
				
가족 뮤지컬 <냥이의 모험: 명선교의 신비> 7. 23.(수) 19:30 전석무료	페인터즈 시즌2 7. 26.(토) 14:00 17:00 전석 2만원	8시 클래식울주최용민밴드와함께하는 <재즈로 만나는 영화음악> 7. 30.(수) 20:00 전석 1만원 (8세 이상 관람가)	울주의 100인, 100개의 이야기 7. 1.(화)~7. 12.(토) 무료	다시 시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공간 7. 15.(화)~7. 26.(토) 무료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	공연	공연	공연	공연
				
내드름 연희단 <한생전2> 7. 12.(토) 17:00 전석 무료 (전체관람가)	저녁을 닮은 음악 7월 <여름너울> 7. 29.(화) 19:30 전석 무료 (만7세 이상 관람가)	저녁을 닮은 음악 8월 <금관양상불> 8. 26.(화) 19:30 전석 무료 (만7세 이상 관람가)	익스트림퍼포먼스 인피니티 플 라인(Flying) 07. 10.(목) - 11.(금) 1층석 40,000원 / 2층석 25,000원 (5세이상-미취학아동 부모 동반 관람/티켓 각각 소지)	분홍립스틱-울산 07.05. (토) 14:00, 18:00 1층 66,000원 / 2층 44,000원 (중학생 이상)

현대예술회관



공연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

SUMMER NIGHT GALA CONCERT

지휘 **사샤 고첼**

Conductor Sascha Goetzel

GALA CONCERT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서곡
마스카니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모차르트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中
로시니 |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中
도니제티 | 오페라 '사랑의 묘약' 中
오펜바흐 |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中

비제 | 오페라 '카르멘' 中
베르디 | 오페라 '운명의 힘' 中
구노 | 오페라 '파우스트' 中
모차르트 | 오페라 '돈 조반니' 中
푸치니 | 오페라 '라 보엠' 中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2025. 8. 29.(금) 오후 7: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_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 50% 할인

 울산시립예술단 | ulsan_arts_companies
울산시립교향악단 | upo_blue
사샤고첼 | saschagoetzel
 '울산시립예술단'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052)275-9623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입장이 가능합니다.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승미**

테너 **박승주**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 안내

가입방법

- 회원기간** 1년, 3년, 5년, 10년
- 회원종류**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 가입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 226-8213, <http://ucac.ulsan.go.kr>

구 분	가입기준	연 회 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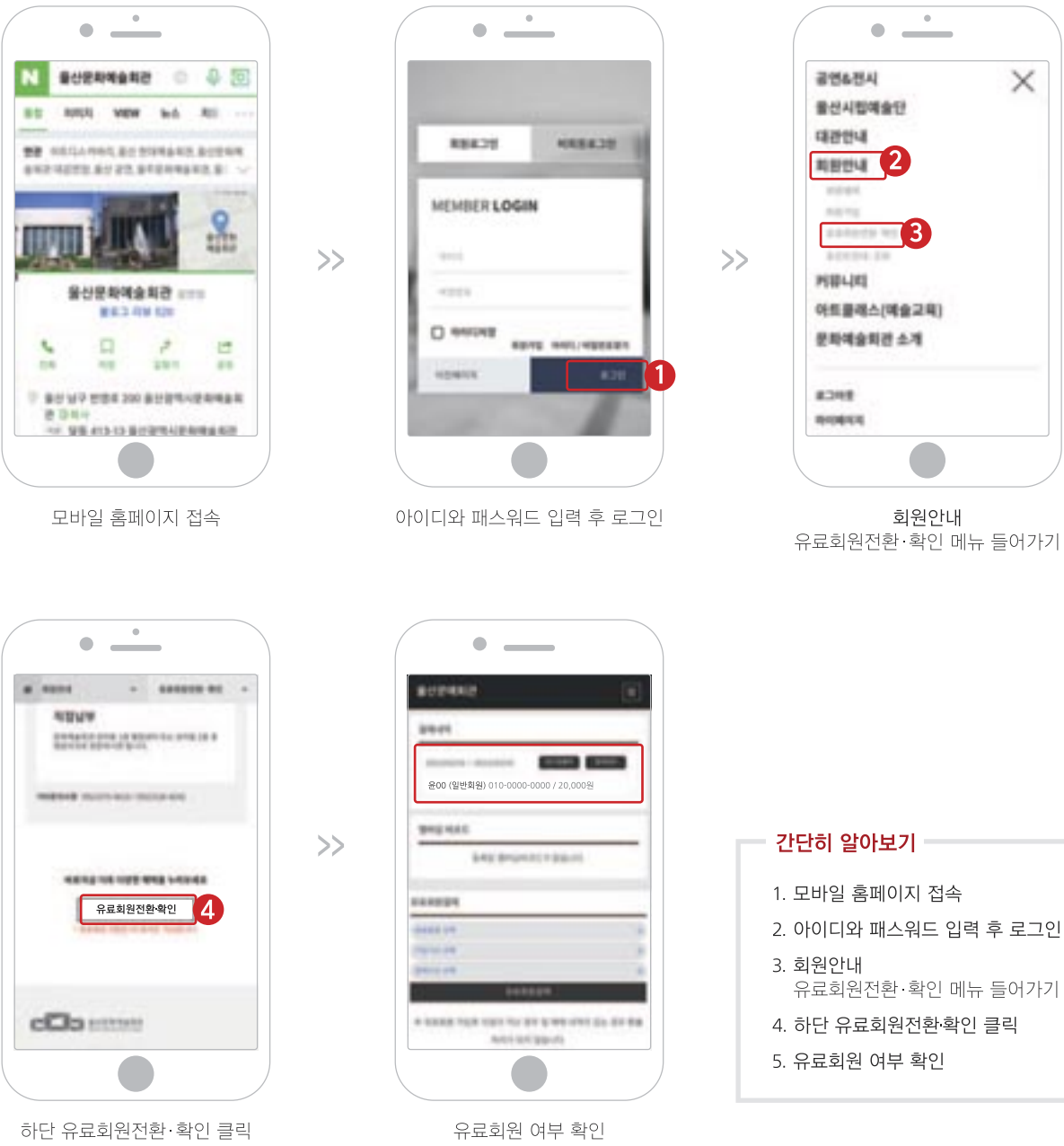
유료회원혜택

-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 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시 사용가능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협약점 이용방법

스마트폰 사용자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13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처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